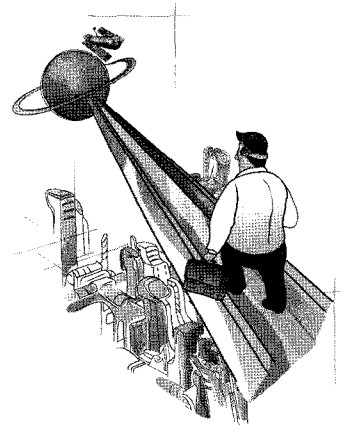


1분기 부품수출 사상최대



'10년 1/4분기 부품·소재산업은 세계 경기 회복세를 발판삼아 역대 최대치인 수출 517억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부품·소재 무역수치 집계 이래('94년) 처음으로 전산업 수출의 50%를 넘어서는 기록적 수치이다. 전산업(역불,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은 수출(1014, 36.3), 수입(979, 37.2), 수지(34)이고, 부품소재(역불,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는 수출(517, 54.8), 수입(340, 37.5), 수지(17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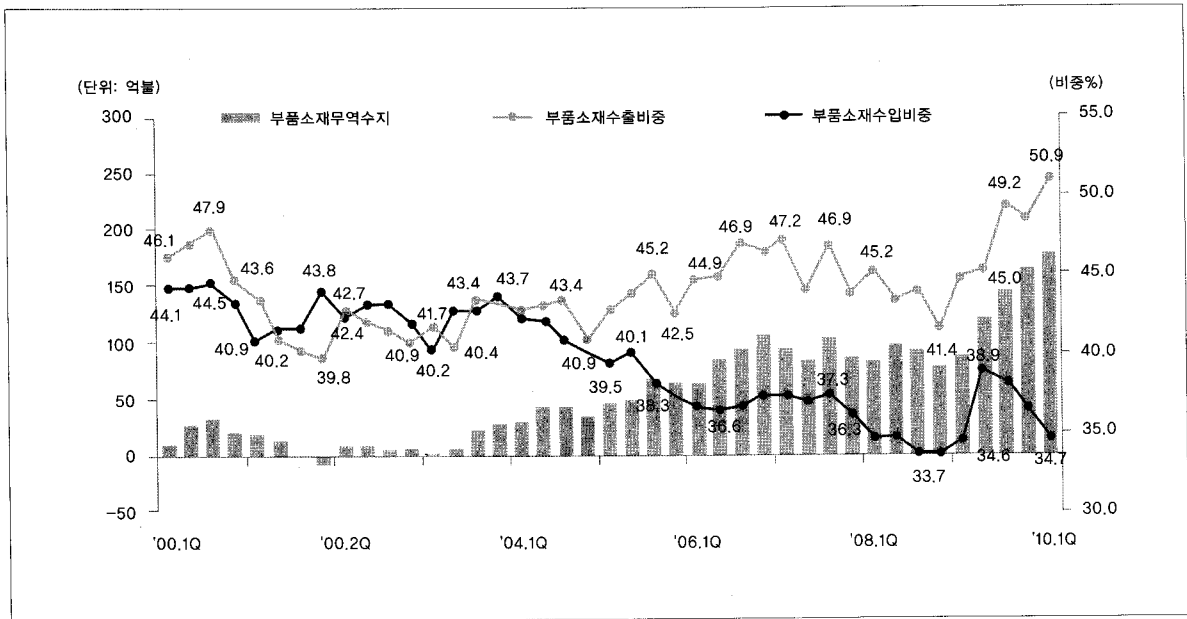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50억불이상 흑자를 이어나가며, 1/4분기 177억불의 흑자를 기록, 수출과 마찬가지로 분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4분기 부품·소재 무역수지(역불)는 46('05) → 93('07) → 87('09) → 177('10)이다.

수출은 모든 부품소재 업종에서 두 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54.8% 증가한 517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과 자동차엔진 등의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부품·소재 수출확대를 주도하였다.

1/4분기 수출 증가 품목(전년동기대비 %)은 메모리반도체(179.9), 집적회로반도체(120.0), 자동차엔진부품(162.9), 기타 자동차부품(110.0)이다.

수입은 수출용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 등이 확대되며 전년동기대비 37.5% 증가한 340억불을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수송기계부품, 전자부품, 화학, 1차금속,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하였다.

【 분기별 부품소재산업 무역수지 및 전산업 대비 수출입 비중 】



1/4분기 수입 증가품목(전년동기대비 %)은 기
타자동차 부품(88.5), 메모리반도체(91.8), 트랜
지스터(41.9), 합성수지(76.4), 합금철(73.3),
비철금속압연(81.2)이다.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1/4분기 중 177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전산업 무역수지 흑
자 34억불의 5배를 상회하였다. 부품 분야는
15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부품·소
재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4.7%를 차지하였다.

소재 분야의 무역흑자는 27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9억불 증가하였으나, 부품·소재 전체 무
역흑자의 15.3%로 부품 대비 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지역별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대부
분의 국가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對日 부

품·소재 무역적자는 소폭 확대되었다.

對中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115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확대('09년 1/4
분기 對中 부품·소재 무역흑자 51억불)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반
도체 및 액정표시장치 등의 전자부품(155억불,
전년대비 71.3%↑)과 합성수지 및 화학원소 등
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36억불, 전년대비
44.6%↑)의 수출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내수 진작을 위
해 '09년 농촌에 가전제품, 컴퓨터, 자동차 구
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동차하향(1월)' 및
'가전하향(2월)' 등 추진하였다.

반면, 실물경기 침체 및 철강경기 급락으로 수
출입이 크게 감소한 1차금속의 경우 수입 감소

【 분기별 부품·소재 수출입 실적(잠정, 통관기준) 】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 연간 | 2009년 | | | | | | | | 2010년 | | | |
|----|------|-------|-------|-----|-------|-----|-------|-----|-------|-------|------|-------|------|
| | | 1/4 | | 2/4 | | 3/4 | | 4/4 | | 1/4 | | | |
| 수출 | 전 산업 | 3,635 | -13.9 | 744 | -25.2 | 904 | -21.1 | 948 | -17.6 | 1,040 | 11.7 | 1,014 | 36.3 |
| | 부품소재 | 1,710 | -6.8 | 334 | -25.7 | 407 | -17.8 | 467 | -7.7 | 502 | 30.3 | 517 | 54.8 |
| | 소재 | 563 | -13.7 | 118 | -24.8 | 137 | -23.4 | 149 | -19.2 | 159 | 20.5 | 167 | 41.8 |
| | 부품 | 1,147 | -3.1 | 216 | -26.2 | 270 | -14.6 | 318 | -1.1 | 343 | 35.4 | 349 | 61.9 |
| 수입 | 전 산업 | 3,231 | -25.8 | 714 | -32.7 | 740 | -35.6 | 848 | -31.0 | 929 | 1.4 | 980 | 37.2 |
| | 부품소재 | 1,197 | -19.5 | 247 | -32.7 | 288 | -27.7 | 324 | -21.8 | 339 | 9.8 | 340 | 37.5 |
| | 소재 | 473 | -26.8 | 100 | -35.4 | 112 | -35.5 | 126 | -32.1 | 135 | 1.9 | 140 | 39.7 |
| | 부품 | 724 | -13.9 | 147 | -30.8 | 176 | -21.8 | 198 | -13.4 | 204 | 15.7 | 199 | 36.0 |
| 수지 | 전 산업 | 404 | | 30 | | 164 | | 99 | | 111 | | 34 | |
| | 부품소재 | 512 | | 87 | | 119 | | 143 | | 164 | | 177 | |
| | 소재 | 90 | | 18 | | 25 | | 23 | | 24 | | 27 | |
| | 부품 | 423 | | 69 | | 94 | | 120 | | 139 | | 150 | |

세 지속(전년동기대비 63.4('08) → △44.8('09) → △18.4('10))된 것이다.

對日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주요 수요기업의 생산 회복과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3억불 증가한 56억불(전년 적자 43억불) 적자기록하였다. 액정·TAC 필름·편광판과 같이 對日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이 필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대일 수입 증가가 지속되었다.

신흥성장국인 ASEAN의 경우, 건설용 철강제품 및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수출 증가로 부품·소재 무역수지 23억불의 흑자 확대되었다. 1/4분기 수출증가품목(전년비 %)은 철강압연·압출제품(92.7), 집적회로 반도체(59.5)이다.

평가를 살펴보면, 부품·소재 중심의 수출구

조 강화이다. 세계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4분기 우리 부품·소재산업은 역대 최대 수출액 기록하여 전산업 수출의 50.9%*를 차지한 것이다. 일본은 52.9%, 미국은 38.7%, 중국은 34.5%, EU는 11.8%이다.

對中 부품·소재 수출집중도 심화이다.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수출집중도가 37.3%로 증가하였다. 1/4분기 對中 부품·소재 수출비중(%)은 21.4('03) → 30.0('05) → 33.9('09) → 37.3('10)이다. ASEAN 지역 등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집중도 개선 가능성은 보인다.

對日 부품·소재 수출 일부 증가, 핵심 부품·소재 대일 의존현상은 지속되었다. 對日 부품·소재 수출은 자동차 관련 부품 수출이 일부 증

【 분기별 부품·소재의 주요국별 교역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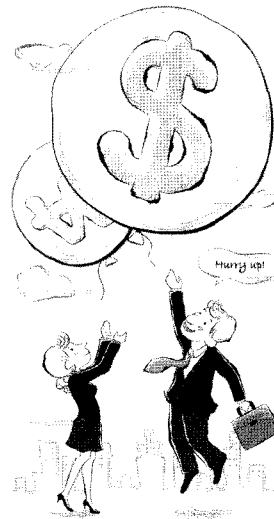
(단위: 억불)

| 구분 | '08 | | | '09 | | | '09.1/4분기 | | | '10.1/4분기 | | |
|-------|-------|-------|------|-------|-------|------|-----------|-----|-----|-----------|-----|-----|
| | 수출 | 수입 | 수지 | 수출 | 수입 | 수지 | 수출 | 수입 | 수지 | 수출 | 수입 | 수지 |
| 대세계 | 1,835 | 1,488 | 348 | 1,710 | 1,197 | 512 | 334 | 247 | 87 | 517 | 340 | 177 |
| 일본 | 137 | 347 | -209 | 102 | 303 | -201 | 20 | 63 | -43 | 29 | 85 | -56 |
| 중국 | 551 | 416 | 135 | 613 | 276 | 337 | 113 | 62 | 51 | 193 | 78 | 115 |
| 중동 | 104 | 17 | 86 | 96 | 13 | 83 | 21 | 2 | 19 | 23 | 5 | 19 |
| 유럽 | 220 | 238 | -18 | 175 | 197 | -22 | 35 | 42 | -6 | 53 | 52 | 1 |
| 미국 | 166 | 158 | 8 | 131 | 127 | 3 | 28 | 25 | 3 | 44 | 37 | 6 |
| 중남미 | 118 | 25 | 93 | 94 | 25 | 70 | 18 | 3 | 15 | 27 | 7 | 20 |
| ASEAN | 211 | 135 | 75 | 180 | 122 | 58 | 34 | 25 | 8 | 56 | 33 | 23 |
| 여타국 | 330 | 151 | 178 | 318 | 134 | 184 | 64 | 24 | 40 | 91 | 43 | 49 |

가하였으나, LED, TAC필름 등 핵심 부품·소재 대일 의존현상은 지속된 것이다. 1/4분기 對日 주요 수입증가 품목(%)은 LED(187.9), TAC 필름(106.9), PI 필름(92.3)이다.

정책적 시야점으로 금번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존의 글로벌 부품·소재 조달체계가 재편됨에 따라 이를 우리 부품·소재기업이 글로벌 소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금년 6월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및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를 개최할 계획이다. 美, 獨, 日, 中 등에 소재한 해외 수요기업과 우리나라 우수 부품·소재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품목선정을 끝낸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WPM)' 및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할 계획이다.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부품소재 | 수출 실적 | | 주요 요인 |
|--------------|---------|---------|--|
| | '09.1/4 | '10.1/4 | |
| 조립금속제품 | 7.2 | 9.3 | •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설비투자 증가로 증기발생기부품(전년동기대비 161.3%), 금속파스너 및 나사(전년동기대비 68.3%) 등 수요 증가 |
| | Δ12.6 | 29.9 | |
| 일반기계부품 | 33.9 | 41.0 | • 중국 설비투자 증가 및 플랜트 발주 회복 등으로 관련 부품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등의 수요는 다소 미흡 * 국가별 수출 증가율(%) : 중국(49.5), 유럽(10.0), 미국(6.7), 일본(Δ2.7), 중동(Δ9.5) |
| | Δ16.8 | 21.2 | |
|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 8.1 | 10.8 | • 노트북 및 미니PC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중국 및 유럽 지역으로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기억장치(전년동기대비 45.1%) 및 컴퓨터용 메인보드 및 카드(전년동기대비 19.2%)수출 증가 |
| | Δ41.8 | 32.0 | |
| 전기기계부품 | 24.2 | 34.5 | • 중국 설비투자 증가로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전년동기대비 74.3%)와 기타 전기장비 부품(전년동기대비 100.3%) 등의 수출 호조 |
| | Δ18.4 | 42.4 | |
| 전자부품 | 112.1 | 195.6 | •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의 반도체, 액정디스플레이의 수요확대로 수출 증가세 주도 * 주요부품 수출액 및 증가율 : 메모리 반도체(48.7, 179.9%), 액정표시장치(66.5, 65.0%) |
| | Δ26.6 | 74.6 | |
| 정밀기기부품 | 7.7 | 11.4 | • 수요산업인 LCD패널 수요증가로 광섬유 및 광학요소(전년동기대비 66.5%)의 중국 수출이 정밀기기부품 수출 증가를 주도 |
| | Δ5.6 | 48.2 | |
| 수송기계부품 | 22.6 | 46.7 | • 중국의 '자동차하향정책'에 힘입어 중국 자동차부품(전년동기대비 114.2%)의 수출 증가세 지속 • 미국·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도 글로벌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수요 회복세 |
| | Δ42.2 | 107.0 | |